

학습 부진에서 자발적 학습으로,
우리 아이 변화의 모든 기록

**공부라면 벌벌 떨던 우리 아이가
공부가 제일 쉬웠대요.**



“공부가 두려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전직 교사
추천도서

아이의 공부 습관, 마음, 태도를
바꾸는 특별한 방법

스포라 몰입사고 스튜디오

1장.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공부를 무서워했을까요?

1) "책만 보면 졸려요..." : 공부에 대한 첫 감정

“선생님, 우리 아이는 책만 펴면 하품부터 해요.”

“글쓰기 시간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도망가요.”

“읽어야 하는데 눈이 감긴대요. 진짜 졸립다고요.”

아마 이 전자책을 펼친 엄마라면,
한 번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아이는 더 멀어지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혹시 성격이 너무 산만한 걸까?’

하지만,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아가는 것, 느끼는 것, 표현하는 것을 즐깁니다.

문제는 “공부”라는 단어가 아이에게 ‘틀리면 안 되는 것’,

‘어렵고 답이 있는 것’이라는 불안한 감정으로 인식됐다는 데 있었어요.

아이 마음 속에 쌓이는 ‘학습 공포 기억’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곤 해요.

1장.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공부를 무서워했을까요?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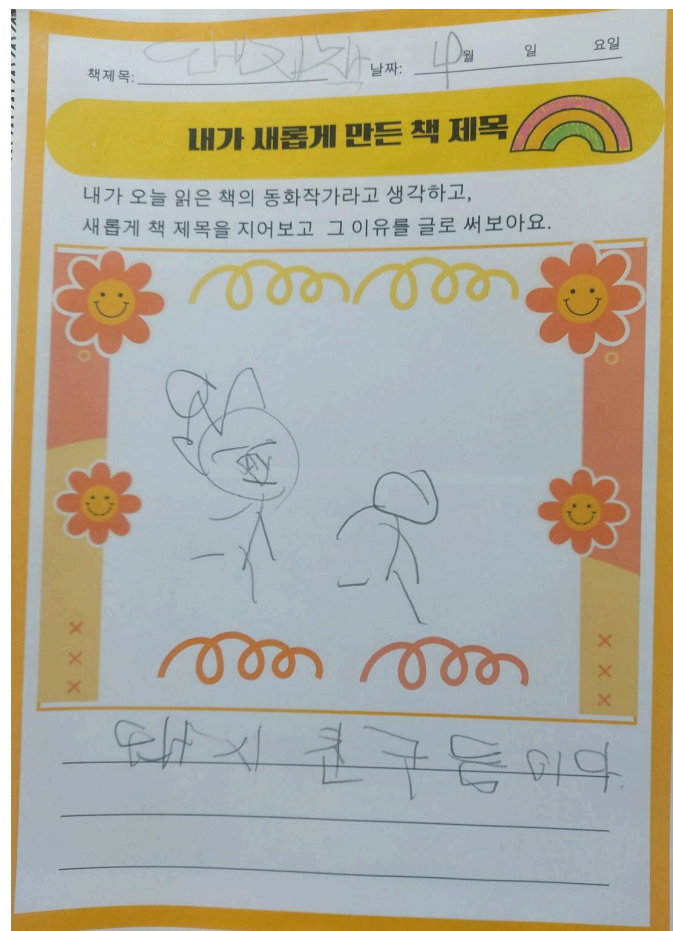
“이거 맞아요? 이거 틀렸어요?”

“나 잘 못하는데...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런 말 뒤에 숨어 있는 건 단순한 귀찮음이 아니라,

‘틀릴까 봐 두려운 마음’이에요.

글씨는 쓸 줄 알지만, ‘자기 생각을 말로 꺼내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 처음에는 글쓰기나 표현에 어려울 수 있어요 >

실제 학부모 이야기

1장.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공부를 무서워했을까요?

“학원에서도 말수가 너무 적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글쓰기 하자고 하면 우는 날도 많았어요.”

“자꾸 책상에 앉기만 하면 하품을 해요.

그래서 처음엔 정말로 졸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불안 반응이더라고요.”

이처럼 많은 아이들이

학습 그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표현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포비엘’이라고 부릅니다.

‘포비엘(Phobia Learner)’은

학습에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을 뜻하는 용어예요.

스스로를 ‘공부 못하는 아이’로 인식하며,

틀릴까 봐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몰라요.”

“틀렸으면 어쩌죠?”

“이건 어려워요.”

입니다.

포비엘의 핵심특징

- ✓ 글쓰기를 두려워함
- ✓ 자기 생각 말하기를 회피함
- ✓ ‘공부는 나랑 안 맞아’라고 단정지음
- ✓ 학습 실패 경험이 반복된 아이
- ✓ 자신감보단 불안감이 먼저 반응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공부법’이 아니라,
‘학습을 안전하게 다시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쓰기를 가르치기 전에,
아이에게 먼저 ‘표현은 재미있는 놀이’라는 경험을 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틀려도 괜찮고, 자기 생각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는 조금씩 말문을 트기 시작했고, 글 앞에서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틀려도 되는 공간, 말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표현해도 괜찮다는 확신.
그것이 아이의 공부에 대한 감정을 바꿔낸 첫 시작이었습니다.

2) 성격 탓이 아니었어요 – 사고력 불균형 진단 사례

처음에는 아이가 산만한 줄 알았어요.

집중력이 부족하고, 글쓰기를 싫어하고, 책을 읽고도 금방 내용을
잊어버리니까요.

엄마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성격이 좀 예민해요.”

“감정 기복이 심해서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냥 원래 좀 말수가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관찰해보면,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력의 균형이 깨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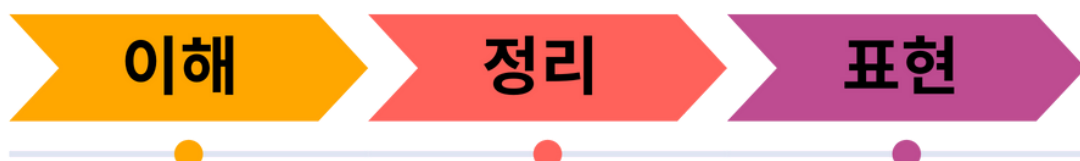
‘사고력 불균형’이란 무엇인가요?

사고력은 단순히 ‘생각하는 힘’이 아닙니다.

생각을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표현해내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진짜 사고가 가능해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 세 가지 중 한두 부분에서 균형이 무너진 채로 학습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고력 과정	문제 유형	아이의 반응
이해	듣고 읽은 내용을 잘 해석하지 못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리	생각을 구조화하지 못하고 흩어짐	“그냥... 잘 모르겠어요.”
표현	생각을 말이나 글로 옮기지 못함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요.”



1장.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공부를 무서워했을까요?

< 사고력의 균형이 깨지면 아이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

이런 아이들은 수업 중 대부분의 시간을 ‘머릿속 정리’가 아니라 불안감과 걱정애 쓰게 됩니다.

- "틀리면 안 되는데..."
- "뭐라고 써야 하지?"
- "생각은 나는데 말로 못 하겠어..."

이 감정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어느 순간 “생각을 멈춰버리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포비엘’로 넘어가는 전 단계예요.

실제 아이 사례 - '지적인데 조용한 아이'

한 아이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고 했어요.

집에 있는 책장 하나가 동화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엄마도 “책은 많이 읽어요”라고 말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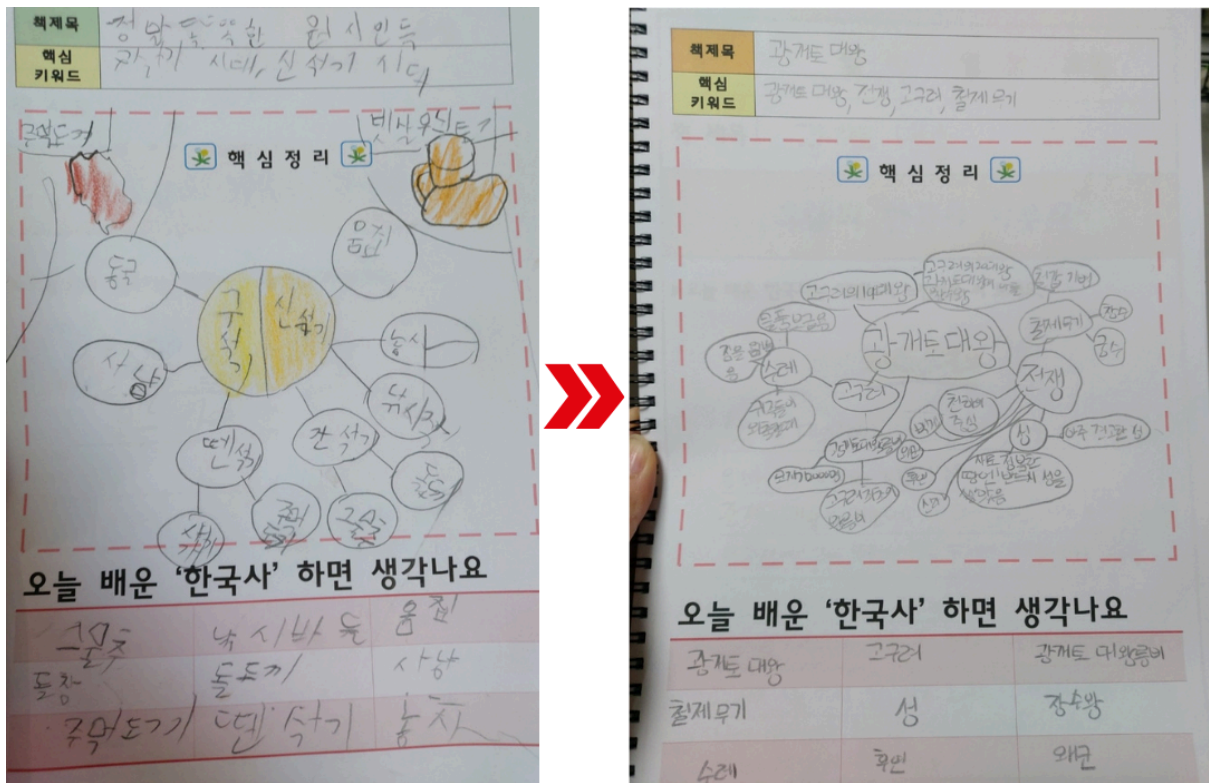
그런데 수업 중 질문을 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글쓰기 시간에는 “생각이 안 나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관찰해보니, 머릿속에는 분명 상상이 있었고 감정도 있었어요. 문제는 그걸 정리하고 표현하는 연결고리가 너무 약했던 거예요.

우리는 아이에게 ‘생각을 글로 꺼내기 전,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부터 차근차근 다시 알려줬습니다.

마인드맵, 연결선 그리기, 단어 분해하기, 문장 나누기 같은 아주 간단한 훈련이었죠.

1장.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공부를 무서워했을까요?



<연습과 훈련을 통해 더 다양한 생각을 펼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고력은 훈련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사고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구조와 경험을 통해 길러질 수 있어요.

단지 읽고 쓰는 훈련이 아니라, 생각을 연결하고 정리하는 루트를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스포라가 가장 먼저 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 정리 훈련이 감정과 연결될 때, 아이는 드디어 자신 있게 말하고, 쓰기 시작하죠.

우리 아이가 표현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아무도 ‘생각하는 방식’을 알려주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1장.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공부를 무서워했을까요?

이제 아이의 ‘사고 흐름’을 이해했다면,
다음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해갔는지,
그 놀라운 전환의 순간들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3) 단순 독서논술 수업으로는 바뀌지 않는 이유

아이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싶어서
‘독서논술 전문학원’을 찾아간 경험, 있으시죠?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니
“이제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몇 주 들어도 아이의 반응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모습만 반복됐습니다.

독후감은 쓰지만, 내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독서논술 수업은

- 책 줄거리 요약
- 등장인물 성격 정리
- 주제 문장 작성
- 독후감 작성

이런 ‘형식 중심’의 글쓰기를 반복합니다.

아이들은 책을 읽고, 요약을 하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기 생각을 껍껍 눌러

1장.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공부를 무서워했을까요?

담아요.

그런데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맞게 써야 하니까, 내 생각은 빼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로 써야지.”

“이건 책이랑 다른 내용이니깐 쓰면 안 돼.”

이건 표현 훈련이 아니라 정답 찾기 훈련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틀리지 않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엄마들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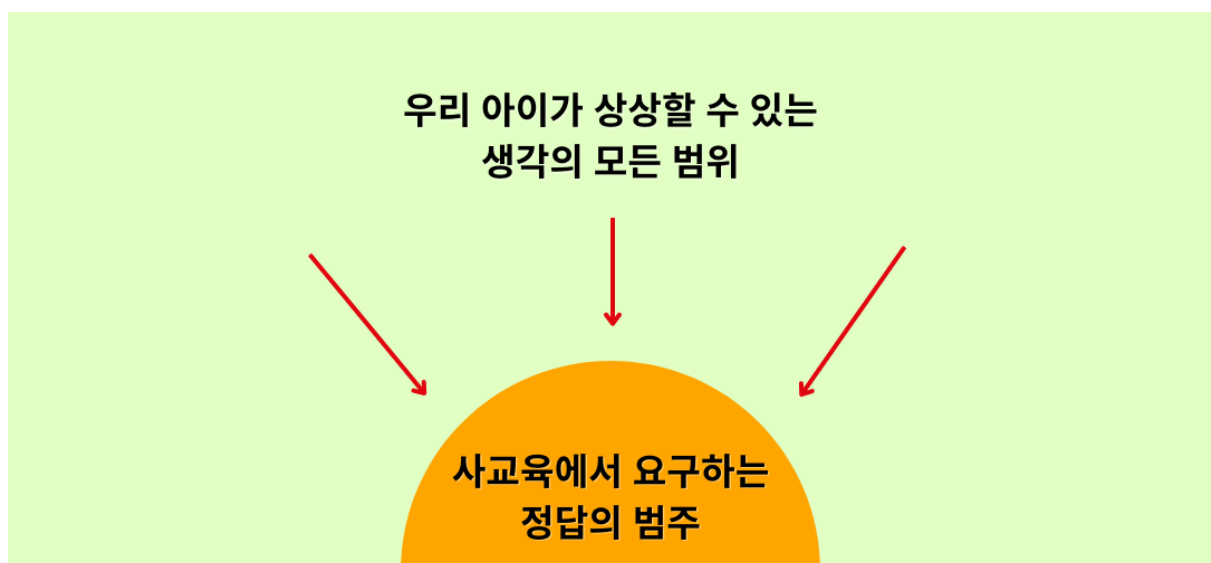
“책은 좋아하는데, 글쓰기를 너무 싫어해요.”

“독후감을 쓰려고 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대요.”

“글을 쓰고 나면 아이가 무기력해져요. ‘틀릴까봐 무서웠다’고 말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엔 성격이나 기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이는 단지 ‘틀려도 괜찮다’는 경험이 부족했던 것뿐이에요.



< 자유로운 표현이 사라지고 정답만 남는 수업 구조 >

1장.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공부를 무서워했을까요?

표현을 허락받지 못한 아이들

스포라에서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이 했던 말들을 기록해두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싫어할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어서 안 쓸래요.”

“맞는 말만 써야 한다면서요?”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 ❌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 ❌ 상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 👉 표현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답 중심 글쓰기가 만든 아이의 행동 변화

변화 전	변화 후	문제 원인
이야기하려던 말을 중간에 멈춤	말하지 않고 눈치 봄	평가에 대한 불안감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음	글이 짧고 단조로움	감정 허용이 안 되는 환경
질문에 “몰라요”만 반복	스스로 검열하며 침묵	자기 검열 습관화

그래서 스포라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스포라는 처음부터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시다.

아이에게 먼저 “느낀 걸 말해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공부를 무서워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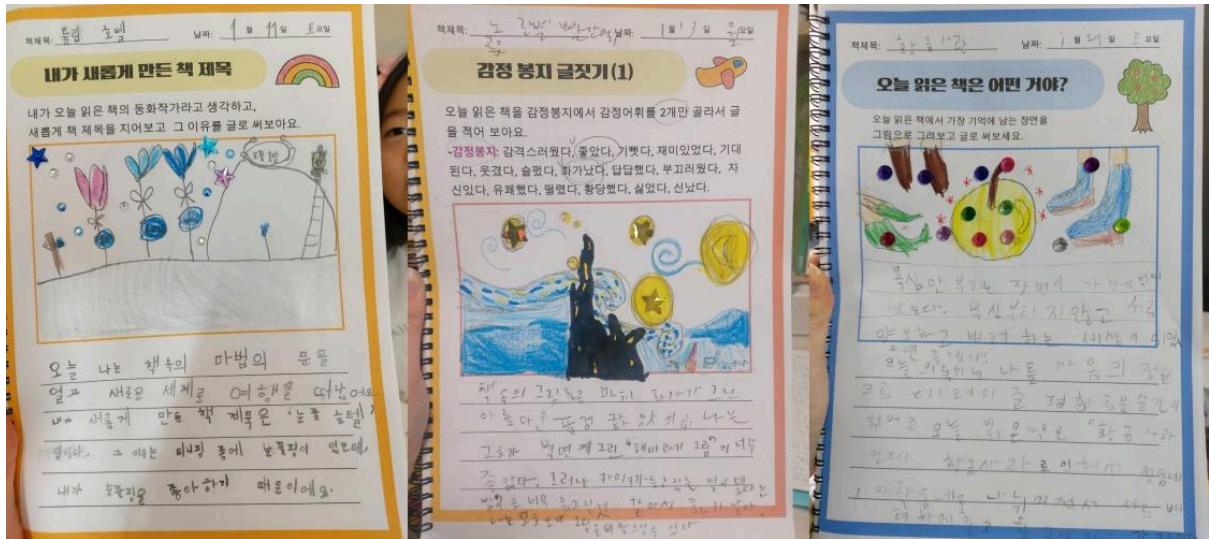
“지금 너의 생각이 정답이야.”

“책이랑 달라도 괜찮아. 너만의 느낌이 중요해.”

“틀려도 괜찮아. 그게 너다운 거야.”

이런 말 한마디에,

아이는 단어가 아니라 마음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 정답이 아닌 아이가 상상한 ‘진짜’ 표현을 자유롭게 해요 >

어느 날 아이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얘기 써도 돼요?”

“오늘 있었던 일, 글로 써도 돼요?”

“이건 책 내용이랑 다르지만, 제가 느낀 거예요.”

그날 이후, 그 아이의 글에는

교과서에는 없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 “슬픈 기분이 초콜릿처럼 녹았어요.”
- “주인공이 웃는 장면이 우리 엄마 같았어요.”
- “글을 쓰는 게 재밌었어요. 말한 걸 글로 옮기는 느낌이에요.”

1장.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공부를 무서워했을까요?

표현은 기술이 아니라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틀려도 괜찮다’는 경험과
‘너만의 느낌이 소중하다’는 확신이에요.

정답을 찾는 글쓰기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찾는 글쓰기.
스포라는 그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글쓰기란,
단어를 나열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꺼내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군가 들어준다고 느낄 때 비로소 글이 됩니다.

이제 그 마음이 글이 되고,
글이 자신감이 되어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4) ‘포비엘’ 아이의 특징 정리

여기까지 읽으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1장.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공부를 무서워했을까요?

“우리 아이도 혹시...?”

“말은 많은데, 글쓰기를 유독 힘들어해요.”

“책은 좋아하는데, 읽고 나면 아무 말도 못 해요.”

“학교 숙제만 해도 울어요...”

그렇다면 아이는 지금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감정과 사고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스포라는 이 아이들을 ‘포비엘’이라고 부릅니다.

포비엘(Phobia Learner)이란?

‘포비엘’은 학습에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를 뜻합니다.

특히 ‘생각을 표현하는 상황’ 앞에서 유난히 위축되거나 말을 아끼고, 틀릴까봐 도전하지 않는 아이들을 말해요.



말은 안 하지만, 머릿속에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써도 괜찮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포비엘 아이들의 대표적 특징

1장.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공부를 무서워했을까요?

포비엘이 자주 보이는 신호들



구분	특징	대표 반응
감정 반응	표현에 대한 두려움	“몰라요”, “이거 맞아요?”
사고 흐름	생각은 있으나 정리가 안됨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행동 특성	시도 자체를 피함	“그냥 안 해도 되요?”
글쓰기 태도	몇 줄 쓰고 끝냄 / 문장 생략	“그냥 짧게 쓰면 안 돼요?”
자기 인식	부정적 자기 이미지 강화	“나는 글 잘 못써요”

학부모들이 자주 놓치는 사인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는 착해요. 말도 잘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창의력이 부족한 걸까요?”

“학습 태도가 안 좋은 걸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느끼는 내면의 심리 장벽이 학습을 방해하고 있던 거예요.

1장.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공부를 무서워했을까요?

‘표현해도 된다’는 심리적 안전감,
그게 없으면 아이는 글썽 아니라 말조차 꺼내지 못합니다.

포비엘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 모음

- “몰라요.”
 - “그냥 넘어가도 돼요?”
 - “틀릴까봐 무서워요.”
 -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 “말하면 혼날까 봐요.”
 - “이거 꼭 써야 해요?”
-

포비엘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포비엘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감정 상태’라는
점입니다.

- 표현이 허락되는 환경
- 틀려도 괜찮다는 피드백
- 감정과 사고가 정리되는 수업 구조

이 3가지만 갖춰지면, 아이는 점점 자기만의 언어를 갖게 됩니다.

스포라에서는 ‘글’을 가르치기 전,
‘감정’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고의 흐름을 열어주고,
마지막에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꺼내도록 돕습니다.

1장.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공부를 무서워했을까요?

포비엘은 결핍이 아니라
표현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그 문을 여는 첫 경험이 바로,
스포라의 글쓰기 수업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이해하셨다면,
다음은 그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바뀌어갔는지,
Before & After의 실제 변화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세요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1) Before & After 비교 사례 (실제 후기 + 사진)

아이들은 ‘글을 못 쓴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원래 글을 못 써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표현해도 괜찮다는 경험이 없었고,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스포라의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 마음을 표현하는 법

- 감정을 글로 연결하는 법

-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법

을 스스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말보다 더 확실한 ‘변화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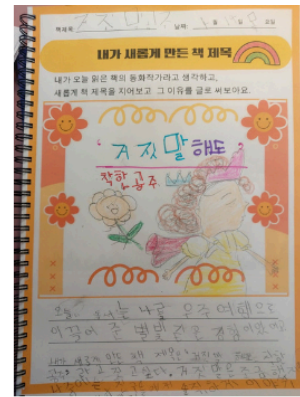
변화 사례 **#1** –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자랑하게 됐어요”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 Befo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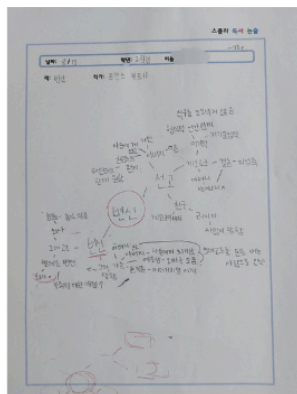
글쓰기 시간마다 “몰라요”만 반복
종이는 하얗고, 눈은 바닥을 향해 있던 아이.



< Aft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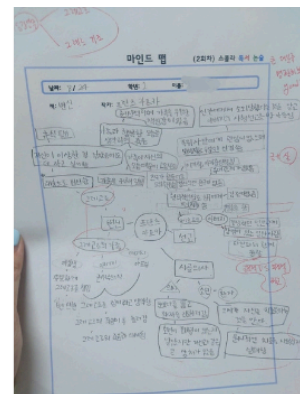
“선생님, 이걸 제가 상상한거예요!”
캐릭터를 만들고, 사건을 구성하고,
스스로 제목까지 지었습니다.

변화 사례 #2 – “‘생각’을 넘어서 ‘표현’까지 도달한 순간”



< Before >

책은 좋아했지만, 읽고 나면 입을 꼭 다물던 아이.
“읽은 건 기억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요...”



< After >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마인드맵을 그리고,
그 안에서 캐릭터의 감정과 사건을 꺼내어 스스로
이야기로 완성했습니다.

엄마의 후기

“글쓰기를 두려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오늘 있었던 일’을 먼저 글로 쓰고 싶다고 말해요.”

“아이의 글에 ‘이야기’가 생기고, ‘표현’이 담겼습니다.”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스콜라 선생님^^ 스콜라에서 글쓰기 배우고 일기쓰기 수업에 자신 있게 10줄 이상은 쓴답니다. 아이가 가져온 일기에 스콜라에서 배운 날씨표현을 배운 것을 기억하고 멋지게 표현해 주어서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군요^^ 선생님께서 다양한 분야들을 알기 쉽게 접하게 해주셔서 좋네요~ 수업활동 내용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없는 관계로.. 혹시나 []이 수업태도에 애로사항 있으시면 편히

엄마보다~ 선생님이 책을 더 재미있게 읽어준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와~ 안그래도 요즘 아빠엄마 그리고 친구한테도 편지쓰고싶다고 []이가 꼬적이고 그랬는데 편지쓰기 너무 좋아했겠어요~ 쓰기도 어쩔 이렇게 잘했는지 감놀입니다👍 항상 정성스러운 수업에 감사드립니다💖😊

[] 일기 너무 []의 색깔이 잘 드러나고재밋네요~ㅎㅎ그림도 웃기고 글도 이렇게 길게 적다니 너무 신기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Before & After 변화 포인트 정리

항목	Before	After
글쓰기 태도	“몰라요”, “틀릴까봐요”	“이건 제 이야기에요!”
구성력	단어 나열, 줄거리 없음	기승전결, 감정 표현 포함
사고 흐름	이야기 뼈대 없음	마인드맵으로 구조화
자신감	피로감, 회피	자랑, 발표 요청
부모 반응	걱정, 조바심	감탄, 눈물, 공유 욕구

이 아이들의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단지 ‘글쓰기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글을 써도 괜찮다”는 감정에서 출발한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말한 ‘변화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세요.

2) 아이가 직접 말한 수업 후기 대공개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죠.

스포라 수업을 경험한 아이들은

입을 꼭 닫고 있었던 과거와 달리,

하나둘씩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솔직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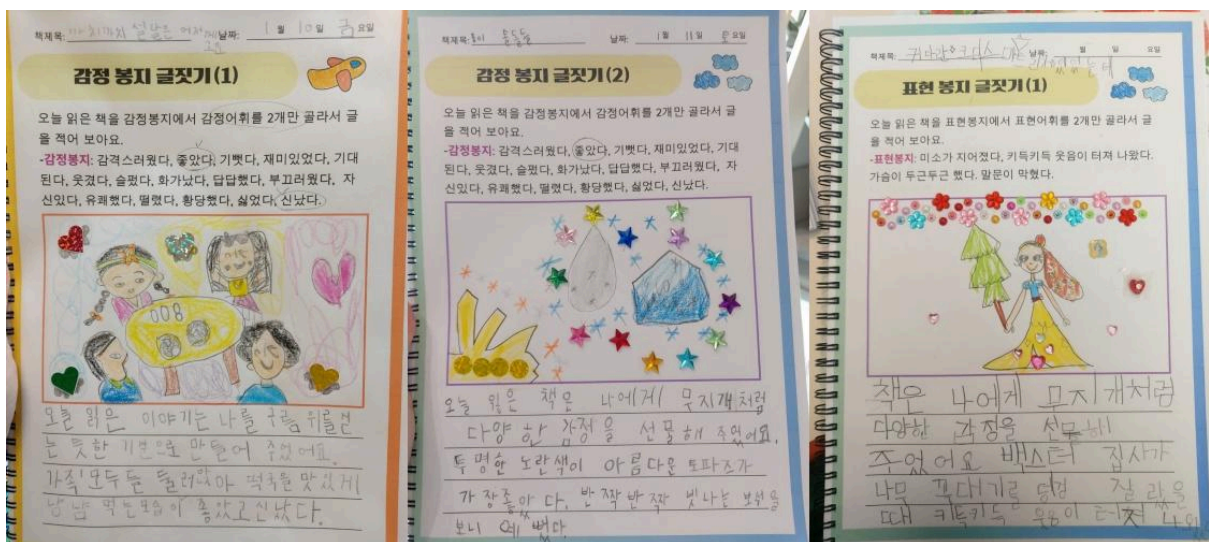
어른의 언어로는 절대 담아낼 수 없는 ‘진짜 후기’였습니다.

후기 **1.**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제 얘기 쓰는 게
좋아요!”

“글쓰기를 하면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선생님이 ‘틀려도 괜찮다’고 해서 그냥 써봤어요.

쓰다 보니까... 이건 제 얘기라서 괜찮은 것 같았어요.”



< 감정봉지, 표현 봉지로부터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요 >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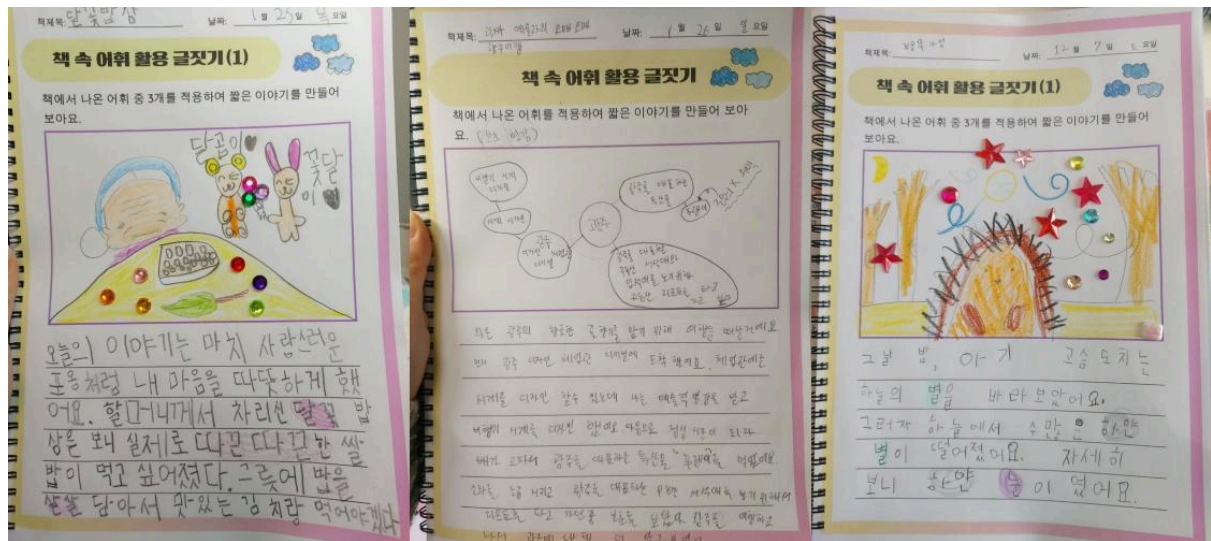
후기 2. “선생님, 오늘 있었던 일 써도 돼요?”

“오늘 엄마랑 공원 갔는데, 나무가 진짜 예뻐어요.

그 얘기 써보고 싶어요. 책 내용보다 제 이야기가 더 하고 싶어요.”

이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주어진 글쓰기’가 아니라 자기 선택의 글쓰기를 경험했어요.



< 책 속에서 고른 단어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

후기 3. “이건 내가 만든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속으로는 생각이 많아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글을 쓸 수 없던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창조된 캐릭터’에 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 책 속의 주인공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요 >

후기 4. “글을 쓰면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요.”

“선생님이 내 글을 읽고 웃어줬을 때,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나만 아는 이야기였는데, 누가 들어줬어요.”

이 말은 한 아이가 수업 후,
자기 글을 큰 소리로 읽고 박수를 받은 날 남긴 말이었어요.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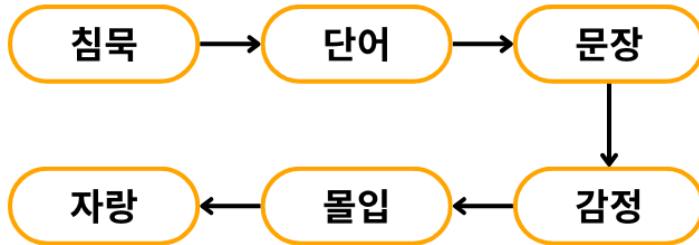
아이들의 말은 가장 강력한 후기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후기를 써도,
담임 선생님이 추천해도,
결국 우리 아이의 말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

후기 내용	내포된 감정 변화	이전 행동	이후 변화
“글에 내 얘기 써도 돼요?”	자기표현의 시작	말 없이 침묵	자발적 표현 시도
“틀려도 괜찮다면서요?”	안전감 확보	불안감, 회피	편안한 쓰기
“이건 내가 만든 캐릭터예요”	감정 외화 시작	감정 억제	감정 글쓰기 가능
“글을 쓰면 기분이 좋아요”	자기 몰입 경험	숙제 인식	글쓰기=즐거움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이의 말에서 시작된 표현의 변화



우리가 정말 가르친 것은 ‘글쓰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말로, 글로, 표현으로 꺼낼 수 있도록
“괜찮아”라고 먼저 말해준 것.

스포라는 글을 잘 쓰게 하는 학원이 아니라,
글이 좋아지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왜 가능했는지,
그 배경에 있는 ‘몰입사고학원 **SPORA**’의 구조와 방식을 소개합니다.

3) 부모님이 놀란 변화 포인트 5가지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이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다름 아닌 부모님이었습니다.

글쓰기를 ‘싫다’고만 하던 아이가 어느 날

“선생님, 이거 엄마한테 보여줘도 돼요?”라고 말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울컥했다고 말합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아이의 정서, 사고, 표현을 완전히 바꾸어놓았습니다.

변화 포인트 #1 - “스스로 책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책 읽자고 하면 갑자기 물 마시러 간다거나,

배가 아프다며 눕곤 했어요.”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이 곧 이해하고 요약하고 정리해야 하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책 = 부담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스스로 꺼내

“이 장면 너무 웃겼어요. 이 캐릭터 저 같아요.”

라고 말하는 아이를 보게 된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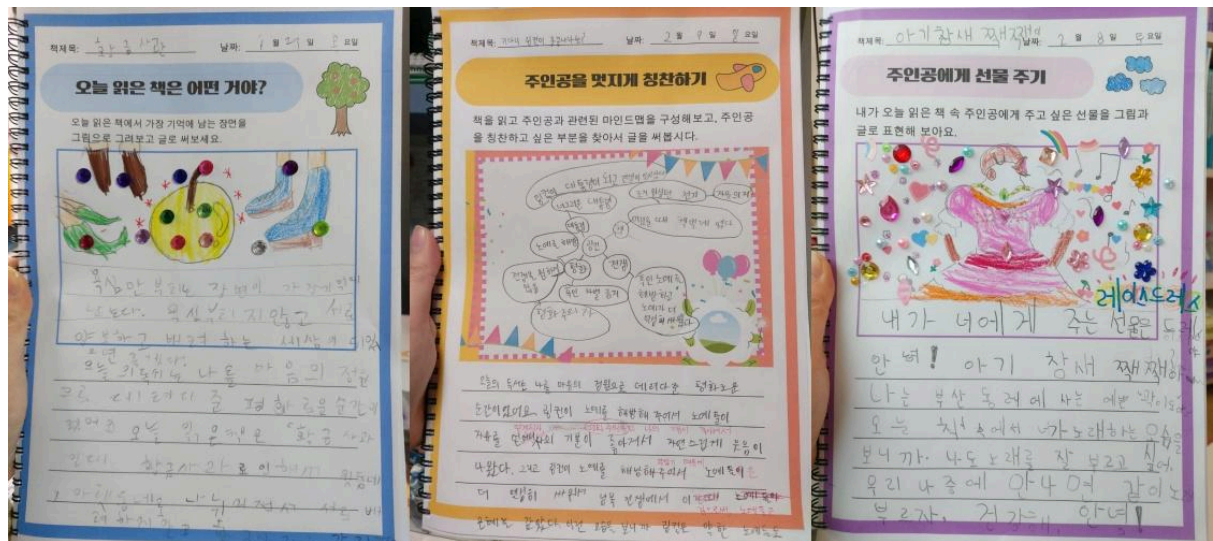
스포라에서는 책을 ‘문해’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느끼는’ 대상으로 접근합니다.

글쓰기와 감정, 이야기가 연결되니

자연스럽게 책도 자기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던 거죠.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변화 포인트 **#2** - “글쓰기 전에 항상 하품하던 아이인데, 이제는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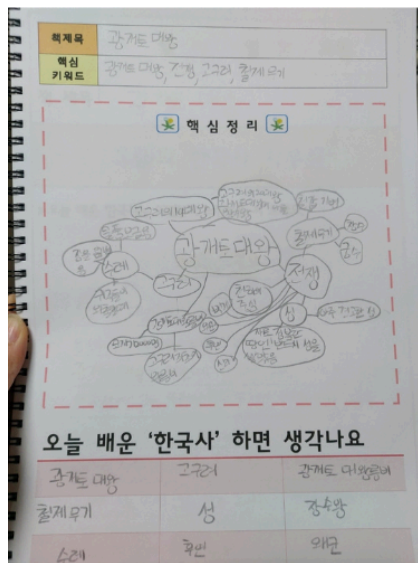
“수업 시작 10분 전부터 앉아 있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쓸지 기대된다면서요.”

예전에는 글쓰기라는 말만 들어도
몸을 움크리고, 눈이 흐려졌던 아이였어요.
글이 어렵다기보다는 ‘틀릴까 봐 무서운’ 상태였던 거죠.

스포라 수업은 글을 ‘쓰는 훈련’이 아니라, 글을 ‘즐기는 경험’으로 설계돼 있어요.
글쓰기 전에 감정카드를 뽑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인드맵을 그리고—
이렇게 ‘틀림 없는 세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글쓰기 자체를 기다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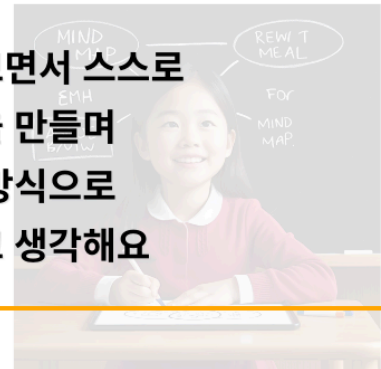
“오늘은 선생님이 제 얘기 들어줄 차례예요.”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광개토대왕 = ?!

마인드맵을 직접 그려보면서 스스로
이야기의 구조와 흐름을 만들며
보다 자유로운 아이의 방식으로
역사 이야기를 이해하고 생각해요



변화 포인트 #3 - “글쓰기가 끝나도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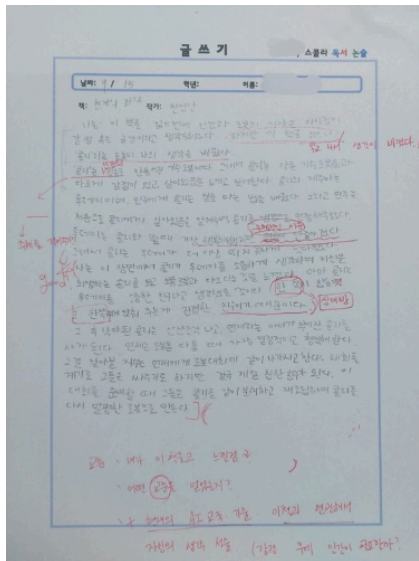
“예전엔 글 다 쓰면 제일 먼저 나갔는데,
지금은 ‘한 문장만 더 써도 돼요?’ 하고 붙잡아요.”

이건 단순한 ‘몰입’의 차원이 아닙니다.
아이 스스로 이야기를 끝맺는 책임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건 강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 아이는 자기가 만든 캐릭터의 마지막 대사에
“괜찮아, 너도 잘했어.”라고 썼습니다.
그건 분명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을 거예요.

이런 정서적 몰입은 아이에게 자기 인식의 힘을 심어줍니다.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만든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어’
이 믿음이 글을 계속 쓰고 싶게 만들어요.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원래 갖고 있던 생각

↓
책을 읽고 변화된 생각

↓
생각이 변화된 이유

↓
그리고 이어지는 확장된
생각의 표현!

“ 자유로운 글쓰기는 아이가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고, 소통하며
자존감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

변화 포인트 #4 - “자기 글을 꼭 읽어달래요.”

“전에는 꼭꼭 숨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제게 보여줘요.”

글을 ‘보여주고 싶어지는 마음’은

표현에 대한 자존감이 생겼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엄마에게, 동생에게, 친구에게

“이건 너 얘기야.”

“이거 읽으면 웃을 거예요.”

하고 전하고 싶어진 순간부터

아이의 글은 혼자서 아닌 ‘세상과 연결된 도구’가 됩니다.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변화 포인트 #5 - “글에 감정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그냥 ‘이랬다 저랬다’ 식의 나열이었어요.

지금은 감정 단어가 보이고, 상황에 감정이 연결돼 있어요.”

처음에는 “재밌었다”, “좋았다” 같은 감정만 반복되던 아이가
점차 감정과 상황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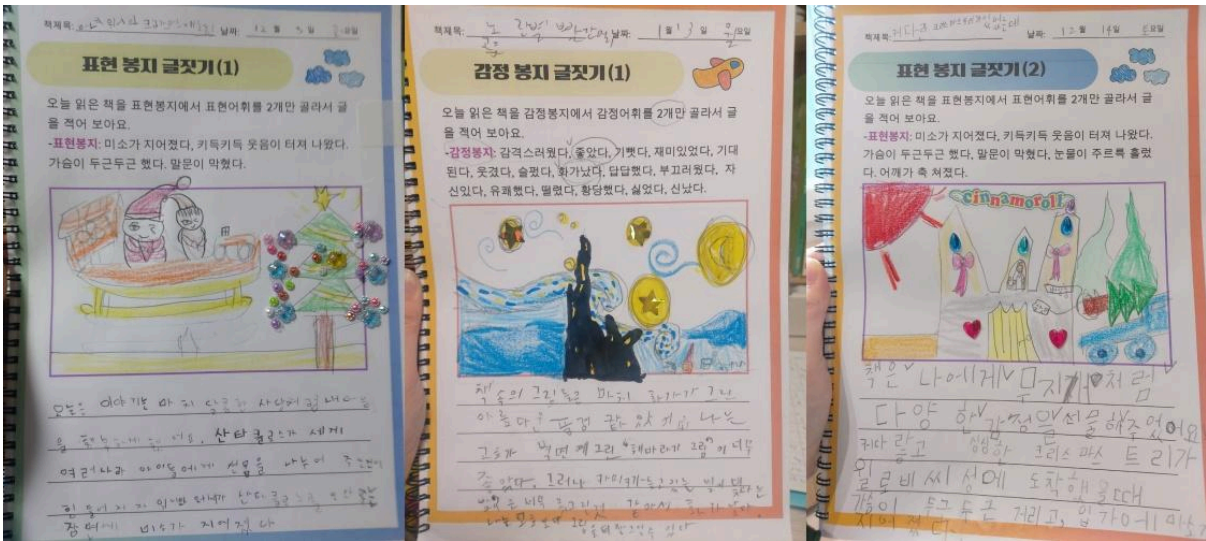
- “기분이 초콜릿처럼 녹았어요.”
- “속이 후두둑 내려앉았어요.”
- “슬픔이 내 손에 잉크처럼 묻어 있었어요.”

이건 단지 문장력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건, 학습이 아닌 ‘회복’입니다.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변화 요약 정리표

항목	변화 전	변화 후	숨겨진 신호
책 읽기 태도	피로감, 눈치 보기	자발적 읽기, 공감 표현	“이 장면, 엄마 같아요”
글쓰기 준비	하품, 회피	기대, 자발적 착석	“오늘 제 얘기 쓸래요”
수업 참여	피하고 끝나면 도망	집중, 스스로 마무리	“결말을 제가 만들래요”
발표 태도	숨김, 외면	읽어주고 싶어함	“이건 너한테 쓴 거야”
감정 표현	단순 나열	감정+상황 연결	“기분이 비눗방울처럼 터졌어요”

<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느낀 변화 요소 5가지 >

엄마들이 보내온 후기 중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예전엔 글을 쓰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답만 있는 문제를 푸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 글 속에 마음이 보여요.”

스포라가 만든 변화는
‘글쓰기 기술’이 아니라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매 수업마다 아이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한
스포라의 수업 설계 원리,
‘몰입사고학원 **SPORA**’를 소개합니다.

4) “우리 아이가 책을 스스로 읽겠대요” 순간들

아이에게 ‘책 읽기’는 늘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숙제였고, 점검 대상이었고, 평가 기준이었죠.

“다 읽었어?”
“무슨 내용이었어?”
“줄거리 말해봐.”

이런 질문들 앞에서
아이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틀리지 않아야 하는 정답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인식했습니다.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책을 펼쳐 말합니다.

“이 장면 너무 웃겼어요.”

“이건 엄마 같아요.”

“이 장면 쓰고 싶어요.”

그 순간, 부모는 말없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처음으로 아이가 책과 ‘감정적으로 연결된 장면’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책을 스스로 읽기 시작한 아이들

스포라에서는 아이들에게

책을 ‘요약하라’거나, ‘주제를 정리하라’는 과제를 주지 않습니다.

책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 한 장면, 또는 하나의 표정을 떠올려보게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중요한 건

책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보다,

자신의 마음에 남은 ‘무언가’를 붙잡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너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이 장면, 혹시 너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이건 단순히 책 내용을 복기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문학 속 감정을 현실의 감정과 연결시키는 대화예요.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이는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외로웠던 건,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해줬기 때문이야.”

“나도 그런 적 있었어. 그때 나도 속으로 울었는데.”

이렇게 책 속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이 닮아 있다고 느끼는 순간,

비로소 아이는 책을 자기 일처럼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책’은 과제가 아닌 대화의 도구가 됩니다.

아이 스스로 책장을 열고,

표현하고 싶은 문장을 찾고,

기억에 남은 장면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 장면은 제가 예전에 꿈꿨던 일이에요.”

“주인공이 울 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 대사,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이건 줄거리나 핵심 내용을 찾는 훈련이 아닙니다.

이건 아이가 자기 마음을 투사하는 일이고,

‘나와 닮은 무언가’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런 활동을 반복하면

아이는 점점 책을 감정의 언어로 읽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이 장면 꼭 쓰고 싶어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처럼 스포라는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정답을 찾기보다, 느낌을 찾아가는 훈련을 먼저 합니다.

책은 결국 느낌이 없으면 다시 펼쳐지지 않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책과 연결될 때,
아이는 비로소 책을 ‘자기 것’처럼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순간 – 엄마들의 고백

“전에는 책을 펴면 하품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 페이지에 접어두고,
다음 수업 때 꼭 그걸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요.”

“처음으로 아이가 책 속 인물한테 편지를 썼어요.
쓰고 나서 저한테 읽어주는데,
‘이 주인공은 제가 예전 같았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독서 습관 형성’이 아닙니다.
이건 내면의 감정이 움직였다는 증거예요.

아이가 책을 ‘자기 삶과 연결’시키기 시작한 순간

책은 그저 글자가 모여 있는 종이가 아닙니다.

- 어떤 아이에게는 나를 대신 말해주는 이야기이고,
- 어떤 아이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고,
- 어떤 아이에게는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계기’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통해 처음 꺼낸 이야기들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 주인공, 저처럼 말을 못 해요. 근데 속으론 화가 나요.”

“이 장면이 나왔을 때, 마음이 찡했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책에서 주인공이 실수했을 때,

저는 그냥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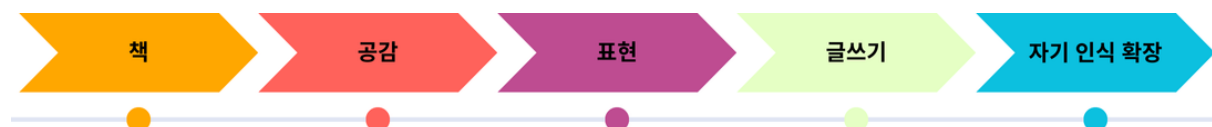
이런 말들이 표현력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내면과 문학이 연결된 순간,

진짜 ‘학습’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독서에서 ‘몰입’이 생기면, 아이는 변화합니다

전	후
책 = 숙제, 과제	책 =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통로
줄거리만 기억	감정, 상황, 의미까지 공감
읽기 회피	자발적 읽기 + 장면 선택
엄마가 읽으라고 해서 읽음	스스로 좋아하는 장면을 찾아냄



< 책과 감정 연결 흐름 >

이 변화의 핵심은 ‘지시 없음, 해석 없음, 감정 허용’

스포라는 책의 내용을 ‘맞게 해석하자’는 수업이 아닙니다.

스포라는 아이가 ‘그 장면을 어떻게 느꼈는지 말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2장. 달라진 우리 아이,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이의 해석은 틀릴 수 있지만,
느낌은 절대 틀릴 수 없습니다.

그걸 믿어주는 순간,
아이의 책장은 다시 열립니다.

“선생님, 이 책 가져왔어요.
저 이거 써보고 싶었어요.”

책을 스스로 읽는 아이는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한 아이입니다.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이유.
그 중심에 있었던 스포라의 교육 철학과 수업 구조,
‘몰입사고학원 SPORA’를 소개합니다.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1) **SPORA** 프로그램의 핵심 구조 (S-P-O-R-A)

“정말 특별한 게 뭐예요?”

스포라의 변화 사례를 본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글을 싫어하던 아이가 글을 기다리고,
자신을 표현하지 않던 아이가 발표를 자청하고,
책을 피해 다니던 아이가 책을 꺼안고 다닌다니—
도대체 어떤 수업을 했길래 그런 변화가 생긴 걸까?

그 변화의 중심에는
스포라만의 교육 설계 방식, **SPORA** 시스템이 있습니다.

SPORA는 단지 수업 방식이 아닙니다.

아이가 ‘감정 → 사고 → 표현 → 자아 정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몰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몰입사고 기반 교육
프로세스입니다.

SPORA 란?

구성 요소	키워드	의미
S Speaking	말하기	감정을 먼저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유도
P Performance	퍼포먼스	몸짓, 그림, 연기 등 비언어적 표현으로 확장
O Organizing	정리하기	마인드맵, 키워드, 구조화된 생각 훈련
R Reflecting	되돌아보기	감정과 사고를 연결해 자신을 인식
A Articulating	구체화	자기 언어로 다시 정리하여 글로 표현하기

이 다섯 단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수업 안에서

이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오늘의 책을 읽은 뒤, “가장 찡한 장면을 말해보기” **(S)**
- 그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P)**
- 그 장면을 말로 정리하고, 키워드 추출하기 **(O)**
- 주인공의 감정을 떠올리며 내 감정과 비교하기 **(R)**
-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담아 짧은 글로 완성하기 **(A)**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아이들은 수업 내내

자신의 ‘내면’을 글로 옮기는 과정을 강요가 아닌 몰입의 흐름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스포라의 글쓰기 수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 “오늘 기분이 어땠어?”
- “그 감정을 색깔로 표현해볼래?”
- “그 감정이 만약 동물이라면 뭐였을까?”
- “이제 그걸 주인공 삼아서,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이처럼 SPORA는

글을 쓰기 전, ‘느끼고’, ‘비틀고’, ‘묘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의 내면을 자기 언어로 번역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스포라 신서우 대표의 말:

“SPORA는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자기 언어’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쓰기 전에 말하고, 그리며, 느끼고, 정리하고...
이 모든 경험이 글을 구성하는 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 **Speaking:** 짝과 이야기 나누기
- **Performance:** 감정 그림
- **Organizing:** 마인드맵
- **Reflecting:** 감정 되돌아보기
- **Articulating:** 최종 글쓰기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SPORA는 학습이 아닙니다.

표현의 경험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틀리면 안 되는 수업이 아니라,

느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내가 한 말이 그대로 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수업입니다.

이제, 그 다섯 가지 단계를

어떻게 수업 속에서 구현하고 있는지

실제 수업 구성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2) 독서 + 논술 + 미술 + 표현을 한 번에?

스포라 수업을 처음 본 엄마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라? 오늘은 그림도 그리고요?”

“말하는 시간도 있네요?”

“근데... 글도 쓰네요?”

맞습니다.

스포라는 글쓰기 수업을 하지만, 단지 글만 쓰는 수업은 아닙니다.

글을 쓴다는 건,

단어를 배열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포라 수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아이들은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 책은 줄거리를 외우기 위한 책이 아니라,
느낀 장면을 다시 떠올리고, 마음속 장면을 마주하기 위한 책입니다.

읽은 다음엔,

말로 이야기 나눕니다.

주인공은 왜 그랬을까?

네가 그 상황이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아이는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은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기분을 색으로 칠해보자.”

“감정을 모양으로 표현해보자.”

이건 미술이 아니라 감정의 외화(外化)입니다.

아이들이 마음을 말 대신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꺼낸 감정은

캐릭터가 됩니다.

내가 만든 인물, 내가 느꼈던 기분을 가진 주인공.

이 캐릭터는 결국 나를 대신해서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캐릭터와 감정을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합니다.

그 글은 줄거리를 요약한 글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상상이 어우러진 ‘자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수업 안에서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책을 읽고,
 말로 나누고,
 감정을 그려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고,
때로는 말로 발표까지 해보는 구조.

이 모든 흐름이
수업 내내 끊김 없이,
아이의 몰입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 과목을 엮은 수업이 아닙니다.
이건 아이의 내면 감정 → 외적 표현 → 사고의 정리 → 자아의 정립까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설계된 ‘통합 사고 구조’입니다.

“이 장면 너무 슬펐어.”

“그 장면, 나 같았어.”

“이 감정을 색으로 그려볼래.”

“이제, 내가 만든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써볼래.”

이건 기술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몰입입니다.

SPORA 수업 진행 방법 中 예시



그래서 스포라 수업을 경험한 아이는,
“책을 읽었어요”가 아니라
“책이 저랑 비슷했어요”라고 말하고,
“글을 썼어요”가 아니라
“제가 느낀 걸 이야기로 만들었어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수업은 기술이 아니라 경험이어야 합니다.
스포라의 수업은 아이에게
‘하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를 이해하게 되는’
작은 몰입의 여정을 선물합니다.

사례 1 – ‘감정 그림에서 시작된 이야기’

한 아이는 수업 첫날,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3장. 물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질문을 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몰라요”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하곤 했죠.

그런 아이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기분을 색으로 그려볼까?”
“지금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 그림으로 보여줘도 좋아.”

아이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한 파란색을 골라, 종이 위에 천천히 둥글둥글 물결을 그렸습니다.
그 옆엔 흐릿한 회색을 덧칠했고,
그 위엔 작은 점 같은 사람 하나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건... 기분이 꿀렁거리는 물 같아요.
이 점은 저예요. 말은 못하지만, 안에는 파도가 쳐요.”

그림 속 사람은 조용해 보였지만,
물 속에는 소용돌이가 도는 듯한 색의 겹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름을 붙여볼래?”
“그 친구의 하루를, 이야기로 만들어볼 수 있을까?”

다음 시간, 아이는
그 그림 속 친구의 이름을 “고요”라고 정했습니다.
“고요는 말을 못 하지만, 눈으로 세상을 기록해요.”
그 말 한 마디에서
이미 이 아이의 세계가 글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
그림으로 시작된 ‘고요의 이야기’는
기승전결을 갖춘 한 편의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고요는 수업 시간마다
조금씩 말하는 연습을 하고,
하루에 하나씩 단어를 배워,
마침내 친구 앞에서 자기 마음을 말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발표 날,
그 아이는 수줍게 종이를 들고
자기가 만든 이야기의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요는 말을 잘 못했어요.
하지만 그 날, 마음속 파도가 밖으로 나갔어요.”

글을 다 읽고 나서
그 아이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글을 잘 썼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이 수업의 출발점은 글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림 한 장이었고,
그림을 통해 꺼낸 감정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한 아이의 표현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처럼 스포라의 수업은
‘글을 쓰는 수업’이 아니라
감정이 글이 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그림 한 장도, 색 하나도,
모두 아이의 내면과 연결된 언어가 됩니다.

이렇게 감정 → 그림 → 이야기 → 글쓰기까지
한 아이가 온전히 자기 흐름을 따라
‘표현의 여정’을 밟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게 스포라의 방식입니다.

사례 2 - ‘캐릭터 만들기 → 입체적 글쓰기’

“오늘은 주인공을 하나 만들어보자.”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
아이들의 눈동자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앞에 두고,
각자 머릿속에 있던 세상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는 말을 더듬는 토끼를 만들었어요.
이 토끼는 친구가 많지만,
속마음을 말할 때마다 혀가 꼬이고, 목소리가 작아진다고 했죠.

“이 토끼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못 들은 척을 해요.
근데 사실은 속으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또 다른 아이는 겁이 많은 사자를 그렸어요.
겉모습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벌레만 봐도 뒷걸음질 치는 사자예요.

“이 사자는 누가 자기를 무섭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무서운 척을 하느라 혼자 울기도 해요.”

어떤 아이는 자기 캐릭터에게
이름표 대신 ‘??’를 붙였어요.
왜 이름이 없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했죠.

“이 주인공은 자기 감정을 아직 몰라요.
화났는지 슬픈 건지 헷갈려서 그냥 물음표로 해놨어요.”

이 대답은 교실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말을 잘하지 않았던 그 아이가,
자기 마음을 캐릭터라는 매개를 통해 말하고 있었던 거죠.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저랑 닮았어요.”
“이 캐릭터는 제가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요.”
“이건 제가 꿈에서 본 장면이에요.”

이건 단순한 ‘상상 훈련’이 아닙니다.
아이의 내면 감정이 비틀어져 표현되는 입체적 글쓰기의 시작입니다.

스포라에서는 이 캐릭터를 단순히 스케치로 끝내지 않습니다.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 캐릭터의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
- 성격을 정리해보기
- 하루 일과를 만들어보기
- 친구, 가족, 고민을 설정해보기
- 그리고 나서, 이 캐릭터가 겪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기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의 인생을 상상하면서

결국 자기 내면을 구조화하고, 표현 가능한 스토리로 연결하게 됩니다.

한 아이는 캐릭터가 울음을 참다가 터트리는 장면에서

자기 글 속에 처음으로 감정을 묘사했습니다.

“목구멍이 바늘처럼 따가웠고,
눈물이 돌다가, 갑자기 폭포처럼 떨어졌어요.”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어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대신 말해줬어요.”

아이에게 글쓰기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주면,

아이는 결국 자기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고, 이야기로 완성해냅니다.

그 도구가 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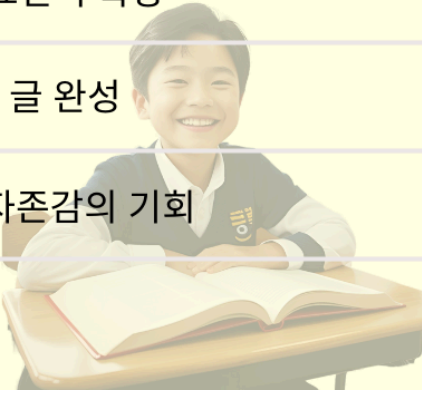
스포라 수업에서 만들어진 ‘나만의 캐릭터’입니다.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감정 → 상상 → 구조 → 표현의 모든 흐름이
아이의 마음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순간
그때 아이는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통합 수업의 진짜 힘

요소	아이가 경험하는 변화
독서	책 내용을 자기 감정과 연결해 이해
말하기	생각을 먼저 꺼내는 연습 ➡ 심리적 안정감
미술	감정을 시각적으로 외화 ➡ 표현력 확장
글쓰기	감정 + 사고 + 구조가 연결된 글 완성
발표	자기 이야기를 말로 나누는 자존감의 기회



스포라는 이 모든 걸
하나의 이야기 흐름 안에서 녹여냅니다.

그 결과, 아이는 더 이상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건 기능의 결합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설계입니다.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래서 스포라 수업은
말이 많아지고,
그림이 감정과 연결되고,
글이 자기를 담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가 글을 쓰고 싶어지는 수업.

그것이 스포라의 수업입니다.

3) 감정-사고-표현이 연결되는 수업 설계 방식

아이의 내면은 복잡합니다.
기분은 있는데, 말로 설명하긴 어렵고
생각은 나지만, 글로 정리하긴 막막하죠.

스포라는 이 복잡한 내면의 흐름을
‘감정 → 사고 → 표현’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단순화해서
하나의 수업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스포라 수업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① 감정 열기
- ② 사고 정리하기
- ③ 표현으로 옮기기

이건 단지 순서가 아닙니다.
아이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설계 방식이에요.

1단계. 감정 열기 – “마음의 문을 엽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한 첫 단계는
문장을 쓰는 연습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아이들은

- 감정 카드 고르기
- 오늘 기분 그려보기
- “지금 내 기분은 ○○ 같다” 말해보기를 하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천천히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기분은 소금물 같아요.
조금 짜고, 조금 서운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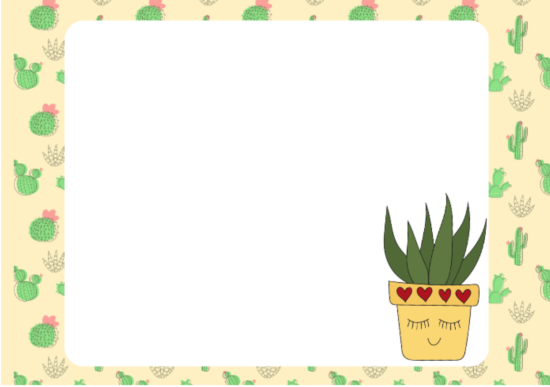
이렇게 꺼내진 감정은
수업 내내 아이의 이야기 흐름을 지탱해주는 정서적 기반이 됩니다.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책제목: _____ 날짜: _____ 월 _____ 일 _____ 요일 _____

감정 표현 글짓기

오늘 읽은 책에 대해 느낀 감정을 떠올리며 다양한 느낌의 감정을 글로 표현해 보아요.



2단계. 사고 정리하기 – “마음의 흐름을 생각으로 정돈합니다”

감정을 꺼낸 다음, 아이는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그 감정이 어떤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리하는 사고 훈련으로 넘어갑니다.

- 마인드맵으로 생각 정리하기
- ‘왜?’라는 질문에 답해보기
- 캐릭터의 감정 추적하기
- 사건의 흐름 정리하기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건 시험에서 나오는 논리적 글쓰기 훈련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구조화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사고 훈련입니다.

“나는 기분이 나빴는데, 왜 그랬지?”

“그 친구가 내 이름을 안 불러줘서, 내가 속상했던 거야.”

이렇게 감정의 뿌리를 스스로 인식하는 훈련은

아이에게 ‘글쓰기’ 이상의 가치를 줍니다.

그건 바로 자기 인식입니다.

3단계. 표현으로 옮기기 – “정돈된 마음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감정과 생각이 정리되면

아이는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 그림
- 말하기
- 이야기 만들기
- 글쓰기
- 발표하기

스포라 수업에서는

“한 가지 방식”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편한 방식으로 시작하도록 유도한 다음,

자연스럽게 최종 ‘글쓰기’로 옮겨갑니다.

예를 들어,

- 감정 → 그림 → 이야기 만들기 → 글쓰기
- 감정 → 캐릭터 창작 → 이야기 구상 → 말로 발표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 감정 → 마인드맵 → 말하기 → 글로 요약하기

모든 경로는 다르지만, 도착점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

많은 수업이

‘사고 → 표현’이라는 구조는 갖추고 있지만,

그 앞단계인 ‘감정’을 열어주는 흐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이 닫혀 있으면,

아이는 아무리 사고가 정리되어 있어도

표현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열린 상태에서 사고가 정리되고,

그 사고가 자기 언어로 표현되는 것.

이게 바로 스포라 수업이 만드는 흐름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라는 기분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봐도 될까요?”

이 한마디에,

이미 아이의 내면은 정리되어 있고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글쓰기란,
‘생각을 전달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면을 풀어내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감정 → 사고 → 표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됩니다.

4) 아이마다 맞춤형으로 다르게 적용된 실제 사례들

어떤 수업이든,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순간,
그 수업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의미해집니다.

스포라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답이 없다’는 점에서 자유롭고,
‘경로가 다르다’는 점에서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책을 읽고도
어떤 아이는 그림을 먼저 그리며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아이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또 어떤 아이는 글은 안 쓰고 말로만 수업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례 1 – 말을 아끼는 아이의 ‘조용한 감정 글쓰기’

한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질문을 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조용히 피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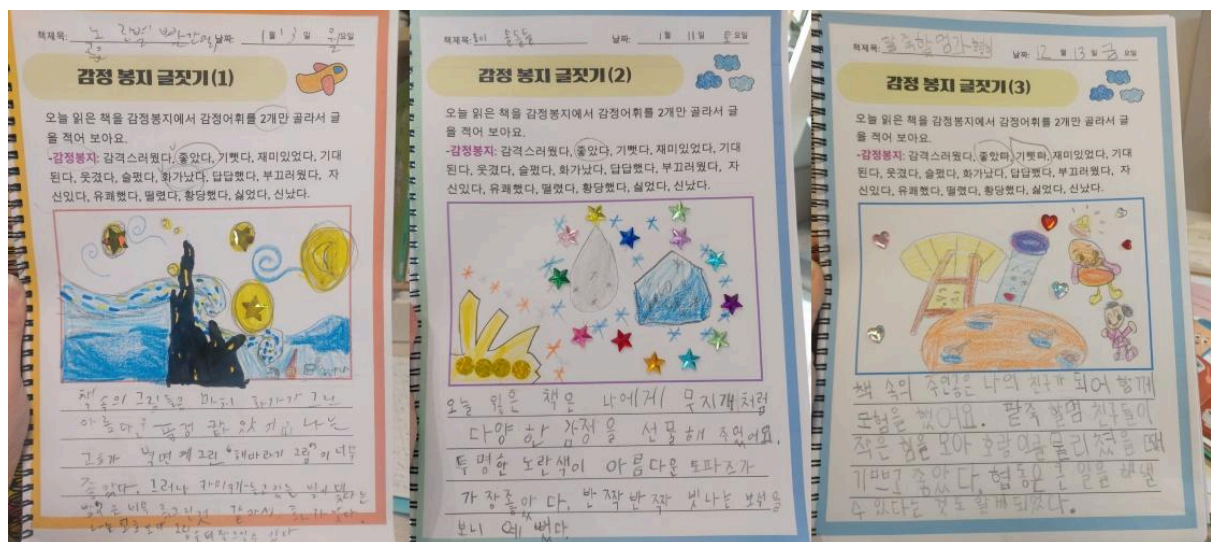
3장. 물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글쓰기 시간에는 늘 마지막에 종이를 내밀었고,
그마저도 겨우 몇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 중 ‘감정 봉지 만들기’ 활동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아이의 감정이 열렸습니다.

“이건 화가 난 감정이에요.
근데 밖으로 안 나가서 봉지에 갇혀 있는 기분이에요.”

그날 이후 아이는 글보다 그림을 먼저 그렸고,
그 그림에 말풍선을 붙였고,
결국 한 문단, 두 문단씩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사례 2 - 말은 많지만 정리가 안 되던 아이의 ‘구조적 사고 글쓰기’

말이 많다고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죠.

한 아이는 수업 내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지만,
막상 글을 쓰면 순서 없이 내용이 흩어지고
무엇이 중심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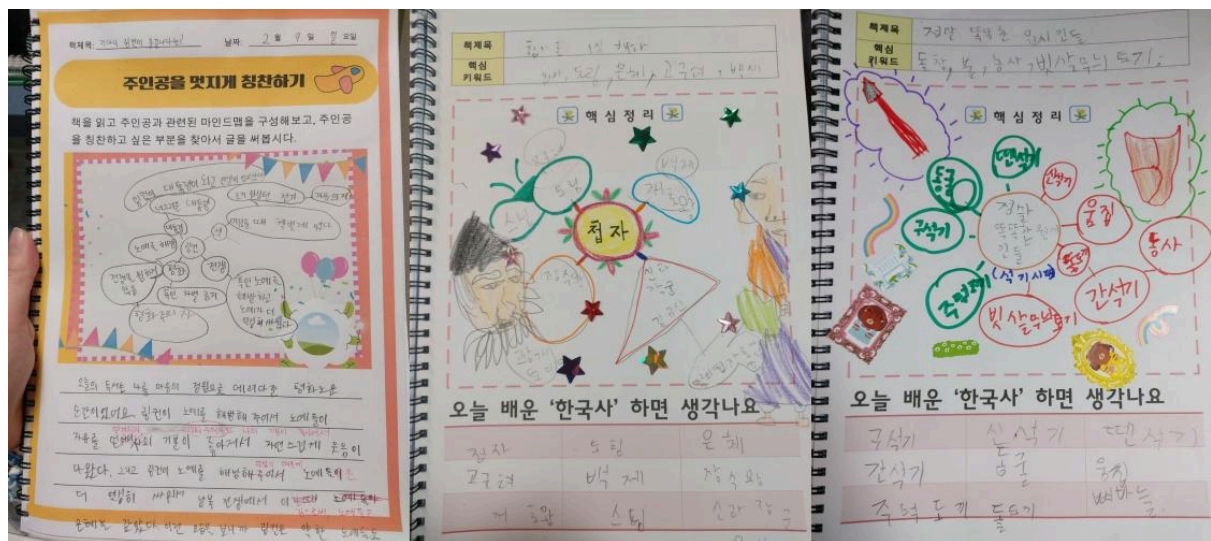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 아이는 ‘마인드맵’을 활용한 사고 정리 활동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말 속에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 주인공
- 사건 발생
- 갈등 상황
- 감정 변화
- 결말

이 다섯 가지를 색으로 구분하고, 선으로 연결하면서 글에 구조와 균형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알겠어요.”



사례 3 – 글에 감정이 없던 아이의 ‘자기 감정 몰입 글쓰기’

한 아이는 항상 성실했고,
글을 쓰면 줄거리도 정확하고 문장도 깔끔했지만...
항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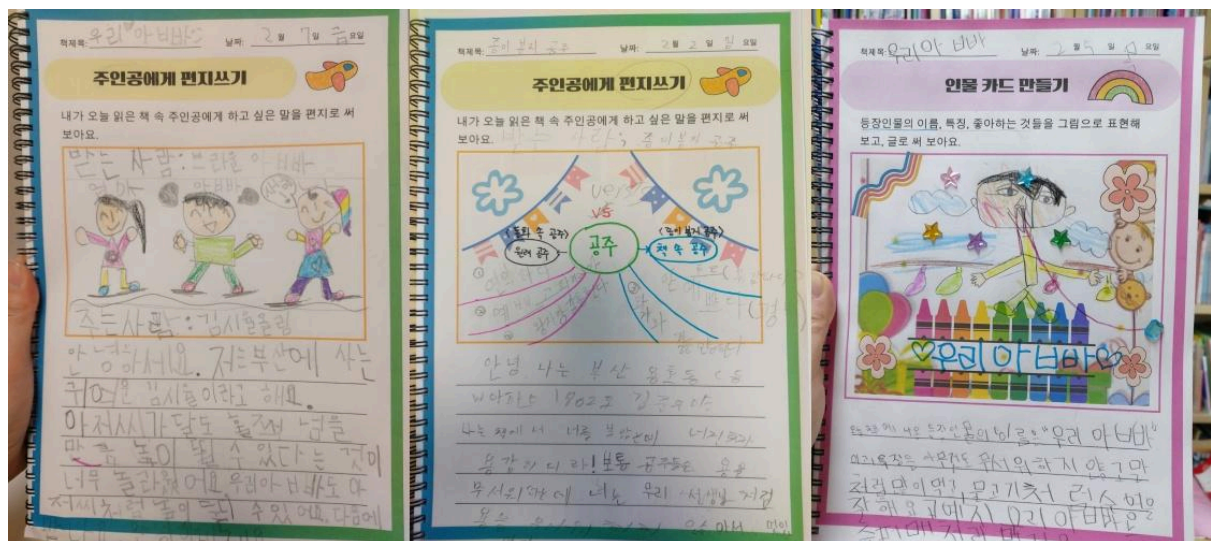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냥 설명 같았어요. 아무 기분이 느껴지지 않는 글.”

이 아이는 ‘주인공 감정 따라 쓰기’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감정’을 글에 녹이기 시작했어요.

- “주인공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질투하고 있었어요.”
- “그 장면에서 저는 주인공이 혼자 있고 싶었을 것 같았어요.”
- “글로 쓰니까 제가 그 장면 속에 들어간 기분이 들었어요.”

이 경험 이후,
이 아이의 글에는 감정선이 생기고,
문장 사이에 여백이 생기고,
독자가 ‘느낄 수 있는 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4 - ‘표현을 두려워하던 아이’가 발표를 자청하다

늘 조용하고,
글을 썼다 해도 “이건 선생님만 보세요”라고 말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자기가 만든 캐릭터 이야기의 엔딩을 썼고,
선생님이 “이거 너무 좋은데, 발표해볼래?”라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랑 닮아서요.
다른 애들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날 그 발표는 교실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아이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의 의미

스포라의 수업은
‘아이에게 맞추는 수업’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로 시작하고,
누군가는 그림으로 먼저 나아가고,
누군가는 조용히 감정을 모아
나중에서야 글로 풀어냅니다.

3장. 몰입사고학원 SPORA, 무엇이 달랐을까요?

맞춤형 수업의 흐름

아이의 특성	적용된 방식	결과
말이 없는 아이	감정 그림 🖍️ 말풍선 글쓰기	감정의 시각화로 표현 가능
사고가 흩어지는 아이	마인드맵 🖍️ 플로우 차트	이야기 구성에 구조 부여
감정이 약한 아이	감정 질문 카드 🖍️ 주인공 내면 묘사	글에 공감과 몰입도 증가
발표를 두려워하는 아이	글 대신 캐릭터 설명 🖍️ 발표 전환	자발적 참여 유도 성공

수업은 하나지만,
아이의 반응은 모두 다릅니다.
스포라는 그 다름을 존중하고,
각 아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4장. 결과보다 중요한 건, ‘경험’이에요

아이가 글을 한 편 써왔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몇 줄 썼어?”

“맞춤법은 틀리지 않았니?”

“주제는 잘 잡았어?”

그 질문들은 아주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아이에게도 “글은 잘 써야 하는 것”이라는 부담으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스포라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글을 썼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주인공은 너와 얼마나 닮아 있어?”

“다 쓰고 나서, 마음이 좀 시원했어?”

글을 잘 썼느냐보다,

글을 쓰면서 어떤 감정을 겪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글쓰기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글쓰기를 통해

아이는 자기 감정을 돌아보고,

사고를 정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갑니다.

4장. 진짜 중요한 건, ‘결과’보다 ‘경험’이에요

스포라 수업은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잘 썼는가?”보다

“이 아이가 이 글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먼저 봅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글을 쓸 때마다 긴장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 얘기니까 그냥 써져요.”

또 한 아이는 글을 다 쓰고 나서

종이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이 글은 저만 봐요.

이건 제가 쓴 저만의 이야기니까요.”

그 아이에게 글쓰기는

점수를 받기 위한 과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하는 경험이었습시다.

결과 중심 수업과 경험 중심 수업의 차이

질문	결과 중심 수업	경험 중심 수업(스포라)
수업 전	“목표는 글 10줄 이상 쓰기야!”	“오늘 어떤 기분으로 시작할까?”
수업 중	“틀린 단어 없도록 조심해!”	“이 장면, 너는 어떻게 느꼈어?”
수업 후	“주제와 맞게 잘 썼는지 확인하자!”	“글 다 쓰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글쓰기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4장. 진짜 중요한 건, ‘결과’보다 ‘경험’이에요

결과물은 그 여정의 기록이지,
결코 아이의 ‘가치’나 ‘성장’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스포라의 수업이 끝났을 때,
아이가 남기는 말이
“잘 썼다”가 아니라
“기분이 좋았다”라면,
우리는 그날 수업을 진짜 잘한 것이라 믿습니다.

1) 점수가 아닌, 자신감을 찾은 아이들

글을 잘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 줄거리를 정확하게 요약하는 것?
- 맞춤법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
- 문장이 매끄럽고, 표현이 풍부한 것?

그런 글은 물론 멋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가 그 글을 썼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스포라에서는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
“이건 네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야?”
“글을 다 쓰고 나서, 마음이 좀 시원했니?”

4장. 진짜 중요한 건, ‘결과’보다 ‘경험’이에요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아이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글로 꺼내는 경험을 한 아이입니다.
그건 글쓰기 실력이 아니라
글쓰기 자신감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아이의 자신감은 이런 말에서 시작됩니다

“몰라요” → “써볼게요”
“어떻게 써요?” → “이건 제 얘기에요”
“틀릴까 봐 무서워요” → “이건 제가 느낀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 “이건 발표해도 돼요?”

이건 한 번의 침묵으로 생기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글쓰기 자체가
자기 표현의 수단이자 자존감 회복의 도구가 되었을 때 생기는 말입니다.

한 아이의 변화

처음 수업에 들어온 아이는
글을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쓰더라도

- 문장은 단조롭고,
- 감정은 없고,
- 내용을 넘어가려는 문장들뿐이었죠.

“그냥 재밌었다. 끝.”
“놀았다. 좋았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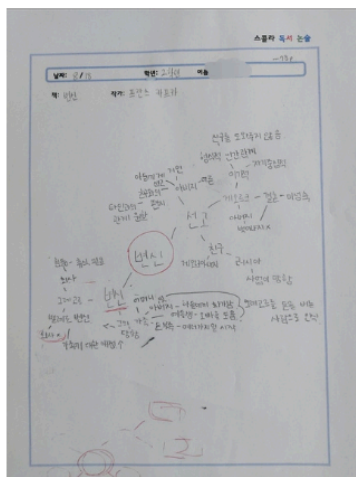
4장. 진짜 중요한 건, ‘결과’보다 ‘경험’이에요

그 아이는 늘 “틀릴까봐 무섭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글이 평가당할까 봐,
자기 생각을 꺼내는 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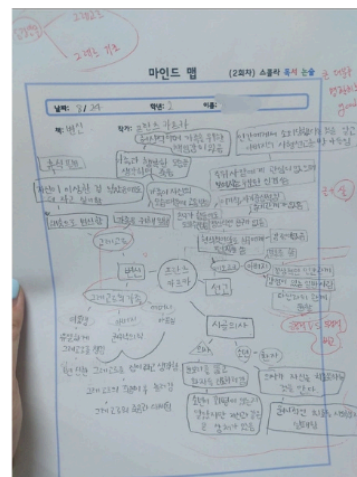
하지만 3개월 후,
그 아이의 글은 달라졌습니다.

- “주인공이 혼자 있을 때, 저도 같이 혼자 있는 기분이었어요.”
- “엄마가 웃는 장면에서, 저도 같이 웃었어요.”
- “내가 울던 날을 글로 쓰고 나니까, 진짜 울던 마음이 좀 나왔어요.”

아이의 변화 전후 비교



< Before >



< After >

엄마의 후기

“이 아이가 글을 쓰며 웃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예전엔 글을 쓰면 어깨가 축 처졌거든요.
지금은 자기가 쓴 걸 저한테 먼저 보여주고,
‘이건 좀 마음에 들어’라고 말해요.”

4장. 진짜 중요한 건, ‘결과’보다 ‘경험’이에요

이건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감정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변화입니다.

점수는 잠깐 남지만, 자신감은 오래갑니다

비교 항목	점수 중심 수업	자신감 중심 수업(스포라)
목표	맞춤법, 문장 완성도	감정 전달, 생각 표현
피드백	“여기 틀렸어”	“이건 네 마음이었구나”
결과물	평가 가능한 글	스스로 꺼낸 이야기
아이의 반응	위축, 두려움	만족감, 자존감 회복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잘 썼다는 칭찬이 아니라,
‘써도 괜찮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쌓일수록
아이는 점점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게 되고,
그 글은 단순히 ‘내용이 좋은 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담긴 글’이 됩니다.

글을 쓰는 손보다 먼저 움직여야 하는 건,
글을 써도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리는 순간,
비로소 ‘글쓰기 자신감’은 시작됩니다.

2) 감정 표현부터 사회성까지 자란 아이의 변화

스포라 수업을 경험한 아이들은
글을 ‘잘 쓰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내가 뭘 느끼는지 알게 됐어요.”
“이젠 말하고 싶어졌어요.”

글쓰기 실력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자라고, 감정이 흐르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감정 표현이 바뀌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아이는 단지 ‘글을 잘 쓰는 아이’가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아이는 자기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 마음은 늘 오해받고, 왜곡되고, 결국은 닫아버립니다.

스포라 수업은 그 ‘닫힌 마음’을 다시 열게 하는 경험을 줍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 인식하고,
그 감정을 말하거나 글로 옮겨볼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감정에 대한 명료함과 해석력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글쓰기 능력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훈련이고,
그로 인해 생기는 변화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선생님과의 소통에서,
심지어 엄마 아빠와의 일상 속에서도
훨씬 더 부드럽고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 속상할 때 말 대신 짜증을 내던 아이가, “지금은 좀 서운해요”라고 말합니다.
- 혼자 있고 싶을 때 무작정 울던 아이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 친구가 장난을 심하게 쳤을 때, “그 말에 기분이 좀 상했어”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이런 작은 표현들은
아이의 자기조절력과 공감력,
그리고 관계 형성 능력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낸다는 건,
그저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오해받지 않도록,
또 상대의 감정도 잘 읽을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스포라 수업은 바로 그 지점까지 아이를 데려갑니다.

감정 표현력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 말을 아끼던 아이가 말문을 열고
- 눈치를 보던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내고
- 참기만 하던 아이가 “싫어요”라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4장. 진짜 중요한 건, ‘결과’보다 ‘경험’이에요

이건 글쓰기 수업의 부수 효과가 아니라,
감정을 기반으로 한 표현 중심 수업의 본질적인 성과입니다.

결국 아이는 글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는
글뿐 아니라, 세상과 맺는 관계에서도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사례 1 – “나 화났다고 말했어요. 전엔 안 그랬는데요.”

한 아이는 늘 얌전하고 조용했지만,
감정 표현이 거의 없었습니다.

- 화가 나도 얼굴이 굳고,
- 속상해도 그냥 고개만 숙이고,
- “괜찮아”라고 말한 뒤 마음을 달아버리는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스포라 수업 중
“화가 났던 순간”을 글로 쓰는 활동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써내려갔습니다.

“친구가 나를 무시했을 때, 말은 못 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진짜 화가 났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글을 다 쓰고 난 뒤, 아이는 말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친구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 2 – 친구의 이야기에 처음으로 공감한 날

4장. 진짜 중요한 건, ‘결과’보다 ‘경험’이에요

또 다른 아이는
늘 자기 이야기만 하던 아이였습니다.
친구의 발표에는 관심이 없었고,
글 발표 시간엔 고개를 숙이고 딴짓을 하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외로운 주인공’ 이야기를 읽는 중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하더니
발표가 끝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기분 알아요. 저도 혼자 밥 먹은 적 있어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며,
자기 글을 읽고 나서도
“혹시 이 기분 이해할 수 있겠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감정 표현은 곧 관계의 출발입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자기 마음을 명확히 이해했다는 것이고,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건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포라 수업은 그래서
‘감정 언어’ 훈련을 중요한 시작점으로 삼습니다.

-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알아차리고
- 그 감정을 단어로 바꾸고
-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연습

4장. 진짜 중요한 건, ‘결과’보다 ‘경험’이에요

이게 반복되면

아이의 글쓰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회성, 공감력, 자기조절력이 함께 자라납니다.

감정 표현력 향상 ➡ 관계 맺기 확장

변화 요소	수업 전	수업 후
감정 인식	"몰라요", "그냥요"	"지금 서운해요", "조금 화나요"
감정 표현	회피, 무반응	그림·글·말로 감정 표현
대인 관계	오해 발생, 갈등 방치	자기 감정 전달 ➡ 상황 개선
공감 반응	관심 없음	"나도 그랬어" ➡ 연결 시작

엄마의 말

“예전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도

그냥 ‘몰라요’, ‘그냥 그래요’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오늘은 기분이 좀 혼란스러웠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는 아이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랄 뿐입니다.

그게 바로,

글을 쓰는 아이보다 더 멋진 표현하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3) 성취보다 몰입을 즐기는 아이의 사고 성장 스토리

“오늘 글쓰기 재미있었어.”

“시간이 훑 갔어요.”

“다음에 이거 이어서 써도 돼요?”

이 말들은 단순한 감상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스포라에서는 가장 값진 피드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성과’가 아니라 ‘몰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몰입은, 사고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몰입이라는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빠져드는 상태입니다.

아이는 그 상태에서

‘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단어와 문장이 아니라

이야기의 구조, 감정의 흐름, 생각의 인과관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례 1 – “선생님, 수업 끝나도 이거 좀 더 써도 돼요?”

한 아이는 수업 내내 집중을 못 했던 아이였습니다.

산만하고, 주제를 벗어나고,

글도 늘 중간에 끊기기 일쑤였죠.

4장. 진짜 중요한 건, ‘결과’보다 ‘경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만든 주인공 이야기 만들기’ 활동을 하던 중,
그 아이가 글을 쓰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너무 아쉬워요.

이 장면에선 주인공이 드디어 고백하거든요!”

그날 그 아이는

처음으로 수업 시간 외에도 자발적으로 글을 이어 썼고,

다음 수업 시간에 자기가 쓴 글을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읽어줬습니다.

사례 2 – “이 캐릭터는 제가 생각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몰입은 아이를 관찰자에서 창작자로 바꿉니다.

한 아이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이 캐릭터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설정 같았지만,

이 아이는 그 감정을 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몰입도 있는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상황이 바뀌어도, 속마음은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혼자 울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진짜 웃어요.”

이건 줄거리 중심 사고가 아닌,

감정선과 인과관계가 연결된 깊이 있는 사고입니다.

몰입은 외적 칭찬이 아닌, 내적 만족을 자극합니다

비교 항목	칭찬 중심 사고	몰입 중심 사고
글쓰기 목적	잘 써서 인정 받기	하고 싶어서 써보기
사고 흐름	맞는 말 찾기	내 안의 말 꺼내기
결과 반응	“틀린 게 없네!”	“이거 내가 만들었어!”
성취 동기	외부 평가	내부 몰입, 자기 확장

글쓰기의 본질은 성취가 아니라, 몰입입니다

‘무언가를 잘 해내겠다’는 태도는
아이를 긴장시키고,
틀리면 안 된다는 부담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끝내고 싶다’,
‘이 장면이 너무 좋아서 쓰고 싶다’는 마음은
아이가 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 안에서
아이의 사고력은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몰입하는 아이는
결과보다 경험을 기억하고,
점수보다 감정을 떠올립니다.

4장. 진짜 중요한 건, ‘결과’보다 ‘경험’이에요

그게 바로,
‘글쓰기 성과’가 아닌
‘글쓰기 사고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4) 부모의 시선에서 본 ‘교육의 본질’ 후기들

스포라 수업을 끝낸 후,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을 잘 쓰게 된 것도 좋지만,
아이가 자기 마음을 말하게 된 게 더 감사했어요.”

아이의 표현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을 때—
부모는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한 글쓰기 수업이 아니구나.”

후기 1. “글쓰기 실력보다, 자기를 사랑하게 됐어요.”

“예전엔 글쓰기를 숙제처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감정을 글로 정리해요.
슬프면 슬프다고 쓰고,
기쁘면 기쁜 이유를 찾고 써요.

글쓰기를 하면서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자기 감정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어머니는 아이의 글을 처음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그 글 안에 ‘아이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기 2. “말보다 글이 먼저 나오는 아이가 됐어요.”

“우리 아이는 낯가림이 심해서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수업을 몇 달 하고 나니,
말로 못 하던 걸 글로 먼저 꺼내더라고요.

‘글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힘’을 가진 아이가
점점 말도 자신 있게 하게 됐어요.”

표현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표현할 통로가 없었던 것임을 깨달았다는 말이었죠.

후기 3. “아이도 몰랐던 감정이 글로 나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던 아이였는데,
글을 쓰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외로웠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 한 마디에,
저는 아이가 진짜 자기를 보기 시작한 것 같아 감사했어요.”

이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점수는 숫자로 남지만, 감정은 마음에 남는다고요.”

이처럼, 스포라 수업은

아이의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아이를 이해하고,

4장. 진짜 중요한 건, ‘결과’보다 ‘경험’이에요

아이의 감정을 듣고,
아이와 마음을 나누는 연결점이 되어줍니다.

스포라 수업이 아이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글쓰기 실력’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아이 사이에 생기는 새로운 대화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쓴 글을 읽고, 처음으로 아이가 왜 힘들었는지 알게 됐어요.
평소엔 말로 하지 않던 속마음이, 글 안에 있었다더라고요.”

아이의 글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쌓여 있던 감정을 푸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글이 그저 '형식'이나 '내용'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는 언어가 되었을 때,
아이와 부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는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부모는 그 글을 읽으며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말하지 못했구나.”
하는 깊은 공감과 이해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4장. 진짜 중요한 건, ‘결과’보다 ‘경험’이에요

이건 단순히 글쓰기 교육이 만들어낸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글이라는 ‘도구’를 통해

감정이 흐르고, 대화가 시작되고, 관계가 회복된 결과입니다.

스포라 수업은 그래서,

아이의 성장을 ‘글을 통해 들여다보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 아이의 감정이 담긴 문장을 읽으며,
 - 아이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고,
 - 아이가 원하는 관계를 상상할 수 있게 하죠.
-

아이가 글을 씁니다.

부모는 그 글을 읽고 울기도 하고,

아이는 “이건 내 얘기야”라며 웃습니다.

그 글이

그저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게 교육의 본질이라 믿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진짜 교육’

기준	일반 수업	스포라 수업
목표	글쓰기 능력 향상	감정, 사고, 표현의 통합 성장
평가 기준	문장력, 맞춤법, 분량	감정의 흐름, 자기표현의 진정성
결과	과제 완수	자기 이야기 완성
부모의 반응	“글 잘 썼네!”	“이 글은 네 마음이구나...”

4장. 진짜 중요한 건, ‘결과’보다 ‘경험’이에요

부모님들의 생생한 후기

안녕하세요 스콜라 선생님^^ 스콜라에서 글쓰기 배우고
일기쓰기 수업에 자신 있게 10줄 이상은 씁니다.
아이가 가져온 일기에 스콜라에서 배운 날씨표현을
배운 것을 기억하고 멋지게 표현해 주어서
감동  일기 너무  의 색깔이 작

일기 너무 의 색깔이 잘 드러나고재밌네요~ㅎㅎ그림도 웃기고 글도 이렇게 길게 적다니 너무 신기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1

르쓰넵넵. 😊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보다 선생님이 책을 더
진짜처럼 잘
읽어준다고.. 👍 👍 👍

매번 상세한 수업내용
고맙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뿌듯하네요ㅎㅎ 오늘 고생많으셨습니다!!

우와~ 안그래도 요즘 아빠엄마 그리고 친구한테도 편지쓰고싶다고 이가 꼬적이고 그랬는데 편지쓰기 너무 좋아했어요~ 쓰기도 어쩔 이렇게 잘했는지 깜놀입니다👍 항상 정성스러운 수업에 감사드립니다💕🥰

표정이 너무 뿌듯해보이네요 ㅎㅎ
항상 정성가득한 수업에
감사드립니다 ^^

그랬군요^^ 선생님
부את을 알기 쉬

이것이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즐겁게 접하고 있어 좋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행복하 하루 되세요 🌈

선생님 🌲🎅
다정하게 가르침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빠르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

넵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이들도
여행중에도 대뜸 스콜라 선생님
보고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참 그리고 화요일은 100% 랑 수업시간을
바꿔서 100% 이가 수업할수 있을꺼요
네요 ㅎㅎ 케슬에 변화가 생겨서
줄이 되어서 아무래도

그런군요^^ 선생님께서 다양한
분야들을 알기 쉽게 접하게
해주시니 좋네요~ 수업활동
내용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1주에 있는 과제
혹시나
앞으로
말씀주
선생님~ 어제는 제
충충 회신을 못했었
어린 연신

선생님~ 어제는 제가 일찍 잠들어서
ㅎㅎ 화신을 못했었네요. 수업 끝나고
이기가 열심히 사전에 탐불어가며
모르는 단어 찾아보더니, 2학년 책으로
가니 모르는게 많다고 더 열심히 책을
읽어야 겠다고 하네요 ㅎㅎㅎ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글을 잘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의 말이 진심이 되고,

그 진심이 글로 이어지며,

그 글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글이 바뀌었다”보다

“아이의 마음이 열렸다”는 말이 더 많이 들리는 곳,

그곳이 바로 스포라입니다.

5장. 우리 아이도 바뀔 수 있을까요?

1) 이런 아이들이 특히 잘 맞아요!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건, 성격 때문일까요?”

“다른 애들은 쉽게 써 내려가던데, 왜 우리 아이는 자꾸 멈출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아이마다 다르게 자라는 감정과 표현의 속도는
단지 ‘글쓰기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 어떤 아이는 생각이 많지만
막상 쓰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 어떤 아이는 기분은 알겠는데
그걸 말로 옮기려 하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 어떤 아이는 자꾸만 “몰라요”, “그냥요”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꺼내는 걸 미루곤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바로,
스포라가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스포라가 특히 잘 맞습니다:

- ✓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거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
- ✓ 생각은 많은데 말하거나 글로 풀지 못하는 아이

5장. 우리 아이도 바뀔 수 있을까요?

- ✓ 글쓰기 시간만 되면 위축되거나 긴장하는 아이
 - ✓ 자기 이야기를 잘 꺼내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아이
 - ✓ 감정과 사고, 표현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듯한 아이
 - ✓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숨기거나 혼자 참는 아이
-

스포라 수업은 글을 잘 쓰게 하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자기 감정을 알고,
그 감정을 자기 언어로 꺼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험 중심 수업입니다.

그래서 스포라에서는,
아이가 표현의 문을 스스로 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포비엘 자가진단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아이의 감정 인식, 표현, 사고 흐름, 자기 인식, 대인 관계까지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5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주는 검사입니다.

이런 부모님이라면 꼭 테스트를 해보세요:

- 💡 “우리 아이가 왜 글을 힘들어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 💡 “감정 표현이나 관계에서 유독 어려움을 보일 때가 있어요”
 - 💡 “지금은 괜찮은데, 학교 생활에서 불편을 겪을까 봐 걱정돼요”
-

👉 아래의 버튼을 눌러

우리 아이의 감정·사고·표현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5장. 우리 아이도 바뀔 수 있을까요?

[포비엘 자가진단 테스트 시작하기]

(문항 수: 50개 / 소요 시간: 약 7~10분 /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테스트 후에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수업 방식이 적합한지,
어떤 표현 습관이 필요한지에 대한
개별 피드백이 함께 제공됩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스포라는 그 출발을 함께합니다. 😊

2) 체험 수업은 어떻게 하나요?(신청 안내 & 프로세스 소개)

1. 체험 수업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자녀의 독서 이해력과 글쓰기 실력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학습 방향을 제시해드리기 위해 저희 스포라에서는 『포비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테스트는 학생 개개인의 독서 습관, 사고력, 표현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체험 수업이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포비엘 자가 진단 테스트를 완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스포라 체험 수업}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스포라 온라인 체험 수업 안내 -

5장. 우리 아이도 바뀔 수 있을까요?

대상: 포비엘 자가 진단 테스트 완료 학생

유치부 연령○ ~ 초등 ○학년 (유치부/ 초등부)

일시: (날짜/시간 선택 또는 개별 안내 예정)

장소: 온라인

내용: 포비엘 자가 진단 결과 기반 맞춤 수업 + 학습 방향 제안

비용: 10000원

신청 방법: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링크 또는 QR코드 명시)

신청 기한: [신청일 - 마감일 기입]

우리 자녀의 사고력과 표현력 향상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명 또는 담당자명] 드림

(문의: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블로그 주소 등등)

2. 체험 수업 프로세스 소개

- 독서 논술 수업 체험 진행 절차 안내 -

① 체험 신청 접수

학부모님께서 온라인으로 『포비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완료 후 체험 수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링크, QR코드, 등 방식 안내)

5장. 우리 아이도 바뀔 수 있을까요?

② 일정 및 학년 확인 후 수업 안내

신청서를 바탕으로 아이의 학년과 수준에 맞는 체험 수업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개별 연락 또는 일괄 문자 발송)

③ 체험 수업 참여

아이가 정해진 날짜에 수업에 참여합니다.
수업은 약 ○○분~○○분 동안 진행되며,
독서 활동 → 사고 확장 질문 → 주제별 글쓰기 활동 → 피드백 순으로
구성됩니다.

④ 개별 결과 피드백 제공

수업 후 아이의 독서 이해력, 표현력, 논리 전개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부모님께 개별 피드백을 드립니다.

⑤ 정규 수업 연계 상담 (희망 시)

체험 이후 수업 연계가 필요한 경우,
자녀에게 맞는 정규 프로그램 안내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번 [스포라 체험 수업]을 통해 우리 아이가 글쓰기의 즐거움을 알고, 표현력과
사고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상담 전 꼭 알고 있으면 좋은 Q&A

①수업에 대한 궁금증

Q. 글쓰기 수업이 꼭 필요한가요?

A. 읽기만으로는 사고력과 표현력이 자라지 않아요. 글쓰기와 토론을 함께 해야 진짜 사고력이 자랍니다.

Q. 학교 수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학교는 결과 중심, 스포라 글쓰기는 사고 중심입니다.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풀어내는 훈련을 해요.

Q. 글쓰기는 고학년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어릴수록 기초 사고력과 어휘력이 자연스럽게 쌓여 훨씬 효과가 큼니다.

Q. 국어 성적과 논술 실력은 비례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국어는 지문 해석 위주,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Q. 말이 느린 아이도 할 수 있나요?

A. 오히려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사고를 정리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②스포라 수업 방식과 교재 관련

Q. 어떤 책을 읽고 수업하나요?

5장. 우리 아이도 바뀔 수 있을까요?

A. 연령·수준에 맞춘 좋은 책을 선정해 독서 후, 주제별 사고 질문과 글쓰기로 이어집니다.

Q. 유치원생 엄마예요. 아직 우리 아이가 글쓰기 수준이 낮는데 따라갈 수 있나요?

A. 처음엔 간단한 그림그리기, 단어, 문장 만들기부터 시작합니다. 아이 수준에 맞춰 천천히 올라갑니다.

Q. 수업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보통 주 1회, 60분 수업이 일반적입니다.

Q. 온라인 수업도 가능한가요?

A. 스포라에서는 온라인 수업도 진행하며, 피드백 방식은 오프라인과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③쓰기 실력 향상에 대한 궁금증

Q. 글쓰기에 흥미가 없어요. 괜찮을까요?

A. 주제 선택의 자유와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흥미를 유도합니다.

Q. 맞춤법과 문법 실수도 잡아주나요?

A. 논리적 글 구성뿐만 아니라 문장력, 맞춤법까지 함께 잡아줍니다.

Q.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A. 아이에 따라 다르지만, 3~6개월이면 사고력과 표현력에서 확실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Q. 초등 저학년에게는 너무 어려운 수업 아닌가요?

5장. 우리 아이도 바뀔 수 있을까요?

A. 저학년은 동화책 중심으로 놀이형 글쓰기 수업을 합니다. 쉬운 글부터 차근차근 시작합니다.

Q. 수업 후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되나요?

A. 수업 내용 요약, 아이의 강점/보완점, 글에 대한 칭찬 등이 포함된 개별 피드백이 제공됩니다.

4) 예약자 후기 및 인기 질문 **Top 5** 공개

1. 포비엘 자가진단 예약 후기

①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자가진단 결과지를 받아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엔 말이 별로 없어서 잘 몰랐는데, 아이가 책을 읽고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포비엘 자가진단 테스트 후 스포라 피드백 덕분에 아이에게 맞는 방향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해요.

②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길이 보였어요"

글쓰기를 힘들어하던 아이를 보며 늘 고민만 했었는데, 포비엘 자가진단 결과를 통해 정확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었어요. 아이 수준에 맞춰 구체적인 학습 방향도 제안해주셔서, 이제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③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아이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

처음엔 그냥 간단한 테스트라고 생각했는데, 질문 하나하나가 아이 사고력을 자극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결과도 단순 점수가 아니라, 아이 성향과 사고방식을 분석해주는 느낌이라 만족도가 높았어요.

5장. 우리 아이도 바뀔 수 있을까요?

④ "학교 성적은 괜찮은데 왜 글쓰기가 어려웠는지 알게 됐어요"

평소 국어 성적은 나쁘지 않아서 글쓰기도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걸 이번 포비엘 자가 진단 테스트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스포라에서 아이의 생각을 글로 끌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⑤ "체험 수업 전에 이런 진단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수업 시작 전에 아이 상태를 이렇게 자세히 진단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수업을 들으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업인지 고민하고 제안해주셔서 신뢰가 갔어요.

2. 학부모님이 자주 물어보는 인기 질문 **Top5** 공개

Q. 글쓰기가 입시에 도움이 되나요?

A. 사고력 중심 교육이 강화되면서 논술형 평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Q. 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A. 책을 강요하지 않고, 흥미 있는 주제부터 접근해 독서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줍니다.

Q. 글을 써도 아이가 주제를 잘 못 잡아요.

A. 주제 파악과 핵심 요약 훈련하면서 점차 중심 생각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Q. 학부모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A. 아이의 글에 대해 정답을 말해주기보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라고 질문해 주세요.

5장. 우리 아이도 바뀔 수 있을까요?

Q. 상담 후 바로 수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A. 네, 체험 수업이나 포비엘 자가 진단을 통해 수준을 확인한 후 바로 시작 가능합니다.



**“공부 안 하던 아이도 달라질 수 있어요.
부모의 작은 변화가 아이의 큰 전환점을 만듭니다.”**

**“공부는 아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함께 바뀌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스포라 몰입사고 스튜디오

